

# 전남·경북 도민의 숲 동시 조성 ... 월말 착공

### 목포·구미에 각각 만들어 예산 10억 ... 내년 4월 준공 동서화합·상생협력 증진

영호남 화합을 위한 전남·경북 도민의 숲 조성 사업이 이달 말 목포시와 구미시에서 동시에 착공된다.

목포시 삼학도 중앙공원(전남도)과 구미시 동락공원(경북도)에 조성되는 전남·경북 도민의 숲은 각각 1.5ha 규모에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남·경북 도민의 숲이 조성되는 두 도시는 한국 현대사 발전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대비하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고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동서화합과 양도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 도민의 숲 조성 실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자·전문가 간담회(8회)와 실시설계 용역, 상징조형물 디자인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착공해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목포 삼학도 중앙공원에 조성되는 전남 도민의 숲은 상징마당, 상징 숲, 구미 숲, 경북 숲, 상생의 숲, 목포의 숲 등 총 6개



전남·경북 도민의 숲 조감도.

마당으로 꾸며진다.

상징마당에는 만남의 광장과 포토 존이 조성되고 경북 상징 조형물, 학 조형물, 흔들그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상징 숲에는 경북도의 23개 시군의 지형을 형상화 한 모형이 설치되고, 구미 숲에는 구미시의 대표적 산인 금오산을 형상화 한 경관석이 배치된다. 이곳에는 주로 이팝나무와 갈나무를 심는다.

또 경북 숲에는 경북의 도목인 느티나무를 대단위로 식재한 느티나무 길 조성되고, 도화인 백일홍도 함께 가꾸질 예정이다.

목포시와 구미시에 동일 모형으로 조성되는 상생의 숲에는 양 도의 도목(경북도-느티나무, 전남도-은행나무)을 식재하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담게 된다.

이와 함께 목포의 숲에는 목포 시목(비파)과 시화(백목련)를 식재하고 비파나무 동산도 조성된다.

또 구미시 동락공원에 조성되는 전남의 숲에는 전남의 대표적 인 수종인 은행나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키우던 '인동초' 등이 식재되며, '김영랑 시비' '목포의



전남·경북 도민의 숲 상징 조형물.

눈물 노래비' 등 전남을 나타내는 다채로운 조형물도 설치된다.

내년 4월 도민의 숲 조성이 마무리되면 두 지역 주민들이 근거 없이 갖는 사회적·문화적 편견을 줄이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전담한 김진호 목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목포시와 전남도를 넘어 영호남 상생 협력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도민의 숲이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北, 美에 핵보유국 인정·先평화협정 요구

### 주말 말레이시아서 회동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한 미국과의 '간접대화'에서 '핵보유국' 주장을 반복하고, 비핵화 또는 핵군축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 만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시아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회동 후 현장의 기자들에게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평화협정과 평화 프로세스를 원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시걸 국장은 11월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들어설 미국 새 행정부를 향해 "선(先) 핵폐기는 없다"는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5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폐기 논의의 전제라는 점 등이 한 부상 등의 눈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채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파키스탄 모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시걸 국장의 언급은 이번 기본 입장에 대해 "비핵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상 등이 시걸 국장을 포함한 미국 민간 인사들에게 이번에 언급한 내용은 결국 내달 8일 미국 대선을 거쳐 등극할 백악관의 '새 주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현직 인사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개 접촉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번 협의가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로, 미국 정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밥 딜런 침묵은 무례하고 건방진 일"

### 스웨덴 한림원 관계자 비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75)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프랭크 시나트라와 '와이 트라이 투 체인지 미 나우'(Why Try To Change Me Now)를 부르고 공연을 마쳤다.

이 곡의 제목은 '나를 왜 지금 바꾸려고 드느냐'라는 뜻으로 딜런이 노벨상 수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불렀다.

이후 딜런의 공식 홈페이지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가 다시 삭제되기도 하면서 시상식 참석 여부를 둘러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사라 다니우스 스웨덴한림원 사무총장은 현재 딜런과의 연락을 포기했다며 "딜런은 지난 13일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한림원과 언론의 연락을 피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중이여 호주서도 아이폰7 폭발 주장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잇따라 발화 사고로 생산이 중단된 가운데 애플의 아이폰 7이 폭발했다는 주장이 중국에 이어 호주에서도 나왔다.

호주 시드니에서 서핑을 가르치는 매트 존스는 자신의 차 안에 놓아둔 아이폰 7이 폭발해 차량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폈다고 호주 매체들이 21일 보도했다.

존스는 차 안 옷가지 아래에 아이폰 7을 놓아두고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채널7 방송

수상자 발표 당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서도 딜런은 수상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곡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와이 트라이 투 체인지 미 나우'(Why Try To Change Me Now)를 부르고 공연을 마쳤다.

이 곡의 제목은 '나를 왜 지금 바꾸려고 드느냐'라는 뜻으로 딜런이 노벨상 수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불렀다.

이후 딜런의 공식 홈페이지에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가 다시 삭제되기도 하면서 시상식 참석 여부를 둘러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사라 다니우스 스웨덴한림원 사무총장은 현재 딜런과의 연락을 포기했다며 "딜런은 지난 13일 가수로서는 이례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한림원과 언론의 연락을 피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에 밌했다. 존스는 아이폰7과 함께 이를

깨끗하고 있던 바지가 훼손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겼다.

존스는 특히 1주일 전에 아이폰 7을 샀다며 이를 떨어뜨리거나 정품 이외의 충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이와 관련해 존스와 접촉을 했으며 조사에 들어갔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아이폰 7에 쓰인 리튬이온 전지가 열에 노출되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테일러 메일 호주판은 전했다. /연합뉴스

## '단풍 절정' 무등산 정상

### 11월 5일 을 마지막 개방

무등산 정상이 단풍 절정인 다음달 5일 오후를 마지막으로 개방된다.

이번 개방 구간은 누에봉에서 군부대 정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인왕봉을 지나 부대 정문으로 돌아오는 0.8km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탐방객은 부대 영내 진입을 위해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노선은 그동안 서석대 구간 추상절리대 탐방에 따른 자연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불개 물든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구간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원호계곡과 중심사 주변, 늦새삼거리 일원, 바람재에서 토기 등까지 일주도로, 정상으로 가는 근 작전도로를 따라 누에봉 구간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고 시는 조언했다.

시는 개방 행사가 자원봉사자 20여 명을 특별 조정하고 가을 여행기간을 맞아 무등산 일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티셔츠, 컵, 포도 앨범으로 제작해 정장에서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 주둔 이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2011년부터 지난 8일까지 17차례 개방돼 35만여명이 정상의 비경을 만끽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을 김장은 김치 종가 광주에서'

### 김치축제 내달 18일~22일 남구 김치타운서 열려

### 김장대전과 통합 ... 세계 유명셰프 초청 요리대회도

"김치의 종가 광주에서 김장하세요." '제23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김치축제와 김장대전을 통합해 남부지역 배추, 무 등 김장재료 출하시기에 맞춰 치러지며 김장대전은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김치축제위원회는 김치축제 주제로 '김치! 광주에서 세계로', 슬로건은 '오매! 광주김치 올해 김장은 광주에서'로 선정해 산업축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김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를 지역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해 김장재료를 조달하고, 식품안전기준인 해설펀(HAC-

C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김치업체가 이를 가공 납품토록 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맛있는 전통발효 광주김치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올해 김치축제의 키워드는 '김장은 광주에서'로 각종 프로그램은 김장문화를 반영해 구성한다.

특히, 개막 메인 프로그램은 그동안 매년 별도로 개최한 김장대전을 축제에 반영했다.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의 맛 '김치아리랑'으로 시민들과 어울려 마당마다 게릴라 뮤지컬 형식으로 김치 아리랑의 배우들이 김장을 담그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1994년부터 매년 대통령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광주세계김치축제의 메인 행사로서 김치명인이 되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12개국 28명의 세계 유명 셰프를 초청해 김치응용 요리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본국의 전통요리와 김치를 결합한 김치응용 요리대회를 펼치고, 광주김치 명인들로부터 김치의 본고장 광주김치 노하우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광주김치의 세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광주세계김치축제와 '2016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에서 김장을 하게 되면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이 가능하고 전국 각 가정으로 택배도 가능하다.

김장예약은 김장사무국(062-521-7600)으로 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험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 혈당조절

##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포자제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정확 문외한이든 지내면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